

# 미래를 대표하기(Representing the Future): 핀란드 정부의 청소년 참여 정책<sup>1)</sup>

서현수 한국교원대

## 1. 들어가며: 어떻게 미래를 대표할 것인가?

글로벌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코로나 팬데믹 등 후기 근대적 사회구조 변동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현대 대의 민주주의 체제는 다중적 위기와 전환적 변화 압력에 직면해 있다. 특히, 표준적 대의 민주주의 제도가 기반한 이론적, 규범적 핵심 전제인 ‘권력의 위임과 책임성의 민주적 순환’ 회로가 잘 작동되지 않으면서 엘리트 중심 선거민주주의의 한계가 광범위하게 토론되고 있다. 새로운 ICT 도구와 기술을 갖춘 ‘비판적 시민들’이 더 투명하고 직접적인 민주적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현실과 더불어, 학력과 소득 등 경제, 사회적 요인과 결부된 정치적 불평등의 현실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서현수 2019a).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화는 국가와 지역 수준에서 불균등한 효과를 수반하였고, 세계화의 패자로 남겨진 단위와 집단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의 포퓰리즘 정치세력이 세를 확장하였다(피케티 2020). 최근에는 글로벌 기후 위기의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GDP 중심 경제성장 일변도의 관점과 협소한 자국 이익 중심 이기주의, 그리고 미래세대의 관점과 이해를 정책 결정의 지평 속으로 통합하지 못하는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1) 이 글은 필자가 그동안 유사한 주제로 발표한 여러 편의 글(서현수, 2020a, 2020b, 2020c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 업데이트한 것을 토대로 핀란드 정부의 청소년 정책 프로그램 등 일부 내용을 새롭게 추가한 것임. 또한, 아직 원고의 작성이 진행 중인 글로서 저자의 허락없이 인용, 배포하는 것을 금지함.

‘정치적 현재주의(political presentism)’(Thompson 2010) 등 기성 정치의 체계적 무능과 실패가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그레타 툰베리 등 청소년들의 글로벌 직접행동 캠페인이 전개돼 큰 반향을 불러왔다. 기성의 확립된 정치세력들과 표준적 대표 체계의 한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드러났다(서현수, 2020a).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의 전환적 위기와 사회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기술생태적, 사회경제적, 그리고 민주적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차원에서 선거-정당-의회-정부-시민 간 권력 위임과 책임성의 순환 모형에 기반 표준적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 한계를 보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담론과 실험들이 전개되고 있다.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심화,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실천적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고, 이는 다시 정치적 대표의 개념과 제도적 채널을 혁신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낳고 있다. 참여 민주주의 모델에 기반한 참여예산(participatory budgeting) 프로그램의 확산,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시민의회(citizens’ assembly)·합의회의·시민배심원 등 속의 민주주의 모델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미니퍼블릭들(Mini-Publics), 시민발의(citizens’ initiatives)와 시민투표(referendums) 등 직접 입법을 위한 민주적 기제들,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한 다양한 형식의 e-민주주의 플랫폼과 실험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 보고되고 있다(Smith, 2009).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한 가지 쟁점은 “어떻게 미래 혹은 미래세대를 대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최근 글로벌 기후 위기와 세대 간 정의 등의 새로운 사회적 의제를 매개로 종종 “어떻게 지구 혹은 자연을 대표할 것인가(How to represent the Planet or nature?)”의 쟁점과 연계하여 제기된다(Eckersley, 2011; Vieira & Runciman, 2008; 서현수, 2019a). 이들 질문은 인간에게만 고유하게 부여된 것으로 여겨진 이성적 사유 및 행위 능력 개념에 기반해 민주 정치의 권리 및 대표 체계를 발전시켜온 근대 민주주의 패러다임에 중요한 도전을 제기하며, 현대 민주주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최전선의 이슈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강과 산맥, 돌고래와 노루귀꽃을 어떻게 대표하고 또 이들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에 당사자들이나 그 대표를 적절한 수준과 형태로 참여시킬 것인가는 다양한 쟁점과 의견 차이를 수반하는 까다로운 문제이며,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과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아직 태어나지 않아 현존하지 않는 어떤 존재를 정치적으로 대표한다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이론적, 개념적 쟁점들에 대한 해법을 요하는 이슈라 할 수 있다(Thompson, 2010; Vieira & Runciman, 2008). 한 가지 방법은 의회와 행정부 등 입법과 정책결정 권한을 가진 대표 기구에 미래세대의 관점과 이익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별도의 기구나 메커니즘을 설립하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핀란드 의회(Eduskunta) 미래위원회(Committee for the Future)와 이스라엘 의회(Knesset)의 미래세대위원회(Commission for future generations)를 들 수 있다. 이들 위원회는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의회 입법 심의 과정에서 관련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미래세대의 관점과 이익을 고려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를 통해 현대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 현재주의적 경향과 정책 결정의 짧은 시간 지평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한다.

미래를 대표하기 위한 또 하나의 현실적이고 유력한 방안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들의 관점과 이해를 정책결정 과정에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1995)에서 논한 것처럼, 모든 아동, 청소년은 태어남과 더불어 지상에 ‘새로움’을 가져오는 존재이며, 그러한 새로움의 유입을 통해 인간적 세계와 공동체의 삶이 진부함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고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재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거주하는

‘미래세대’라 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시민교육을 제공하고, 나아가 이들이 일찍부터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채널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물론 지속적인 학습과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아와 인격이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아동, 청소년기는 일정한 수준의 보호와 교육을 필요로 하며, 정치·사회 참여의 수준과 양상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제도적으로 설계될 수 있다. 그러나 갈수록 아동,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과 발달이 빨라지고 있으며, 정치적 지식 및 민주적 태도의 습득, 그리고 미디어 및 정보 리터러시 등 민주적 참여를 위한 시민적 기술의 습득 측면에서 청소년들과 성인 집단 사이의 확연한 구별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후기 근대적 사회변동과 전환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기성의 정치세력과 대표 체계의 무기력에 반발해 청소년들이 직접행동에 나서기 시작한 현실을 외면한 채 청소년의 참여 채널과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은 민주적 정치공동체의 적절한 반응이라 하기 어렵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오늘날 각종 국제비교 지표 조사에서 탁월한 성취를 보이는 북유럽의 혁신 강국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제도적 혁신과 적극적 정책 대응을 보여온 핀란드 정부의 청소년 참여 정책을 연구, 분석하고자 한다. 아래에서 우리는 우선, 핀란드 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징을 개관한 뒤 핀란드의 청소년 참정권 보장 수준 및 구체적인 청소년 참여 채널 현황을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핀란드 정부의 청소년 참여 정책 및 프로그램의 기본틀과 내용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핀란드의 청소년 참여 관련 법제 및 정책 프레임워크, ‘국가 청소년 활동 및 정책 프로그램(2019-2023)’의 기본 내용과 특징, 그리고 핀란드 정부가 준비 중인 ‘민주주의 프로그램 2025’ 등을 검토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서 한국적 시사점에 대해 숙고한다.

## 2. 핀란드 민주주의와 청소년 참정권

한국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 참정권 확대를 향한일보 전진이 간신히 이루어진 2019년 12월 핀란드에서는 34세의 젊은 여성 총리와 다수의 여성 장관들(19명 중 12명이 여성 장관임)로 구성된 새 내각이 출범함으로써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이번 연정에 참여한 5개 정당(사회민주당, 중앙당, 녹색당, 좌파동맹, 스웨덴인민당)의 대표들 가운데 4명이 30대 초반의 여성들로 채워짐으로써 핀란드에서 여성과 청년의 활발한 정치 참여가 가능한 배경과 요인들에 대해 전 세계의 미디어가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하였다. 이들 4명의 여성은 바로 총리인 산나 마린(Sanna Marin, 사민당, 1985년 생), 재무부장관 까뜨리 쿨무니(Katri Kulmuni, 중앙당, 1987년 생), 내무부장관 마리아 오히살로(Maria Ohisalo, 녹색당, 1985년 생), 교육부장관 리 안데르손(Li Andersson, 좌파동맹, 1987년 생)이다.

이들은 모두 20대 초반부터 정당에 가입해 활동을 시작했고(22·3세부터 시의원 선거에 출마), 이미 20대 중후반부터 헬싱키, 탐페레(Tampere), 투르쿠(Turku), 로바니에미(Rovaniemi)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시의원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뒤 최근 당대표 및 내각의 장관직을 맡아 활약하고 있는 여성 청년 정치인들이다. 산나 마린 총리의 경우 20살에 사민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시작했으며, 이미 정치 경력이 15년에 이르는 상황이며, 이는 예컨대 프랑스의 젊은

대통령 마크롱보다 훨씬 긴 것이다. 15년 동안 산나 마린은 땀빼레 시의장을 맡아 어려운 이해관계 충돌과 갈등 상황을 냉철하게 중재하였고, 사민당의 부대표로서 지난 총선 직전 당 대표의 갑작스런 공백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당내 조직들과는 물론 미디어와 일반 유권자들과도 효과적으로 잘 소통하였다. 총선 이후 성립된 사민당 중심 내각에서는 교통통신부 장관으로 재임하며 철도 민영화 관련 논란 등을 무리없이 잘 해결해가는 역량을 보였다. 같은 해 12월 갑작스런 정부 위기와 총리 교체 과정에서 같은 당의 37세 3선 의원 안띠 린트만(Antti Lindtman)과 경쟁해 승리함으로써 당시 시점에서 세계 최연소 현역 총리로 선출되었다. 총리 선출 직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발생해 재임 기간 대부분을 이 문제와 씨름해오고 있는데, 핀란드는 의료적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방역 등 측면에서도 유럽에서 가장 잘 대처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 산나 마린 정부에 대한 지지도 높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핀란드에서는 청년 정치에서 우려되는 요소들(예컨대 경험의 부족, 조급함, 정치적 기회주의 등)이 충분히 불식될 수 있는 성숙한 토양이 존재하며, 실제로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청년 정치인들이 다수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표 1 핀란드 대표 청년 정치인들의 정치 경력

| 이름(소속, 출생연도)                   | 주요 정치 경력                                                                                                                                                                                                                                                                                |
|--------------------------------|-----------------------------------------------------------------------------------------------------------------------------------------------------------------------------------------------------------------------------------------------------------------------------------------|
| Sanna Marin<br>(SDP, 1985년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6년 사민당 가입</li> <li>2012년 지방선거 당선, Tampere 시의회 의장 선출</li> <li>2015년 국회의원 당선</li> <li>2019년 4월 국회의원 재선</li> <li>2019년 12월 총리 선출</li> <li>2008년 지방선거 출마</li> <li>2014년 사민당 부대표 선출</li> <li>2017년 지방선거 재선</li> <li>2019년 6-12월 교통통신부장관</li> </ul> |
| Katri Kulmuni<br>(중앙당, 1987년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5년 국회의원 당선</li> <li>2017년 지방선거 당선</li> <li>2019년 4월 국회의원 재선</li> <li>2019년 12월 - 2020.6. 재정부장관<sup>2)</sup></li> <li>2016년 중앙당 부대표 선출</li> <li>2018년 중앙당 부대표 재선</li> <li>2019년 6-12월 경제산업부장관 역임</li> </ul>                                    |
| Maria Ohisalo<br>(녹색당, 1985년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8년 정당 가입</li> <li>2013-2014 녹색당 청년학생그룹(VINO) 대표</li> <li>2017년 헬싱키 시의원 당선</li> <li>2019년 6월 - 현재 내무부장관</li> <li>2012년 Helsinki 시의원 선거 출마</li> <li>2015년 녹색당 부대표 선출, 국회의원 선거 출마</li> <li>2019년 국회의원 당선 및 당대표 선출</li> </ul>                     |
| Li Andersson<br>(좌파동맹, 1987년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8년 지방선거 출마</li> <li>2012년 지방의회 당선</li> <li>2016년 좌파동맹 대표 선출</li> <li>2019년 국회의원 재선</li> <li>2011-2015년 좌파청년그룹 대표</li> <li>2015년 국회의원 당선</li> <li>2017년 지방의회 재선</li> <li>2019년 6월 - 현재 교육부장관</li> </ul>                                        |

출처: 서현수(2020c: 24)의 표9를 일부 업데이트한 것임.

핀란드에서 근대적 형태의 민주주의와 보편적 참정권이 실현된 것은 한 세기 전인 1906년이다. 1905년 러일전쟁의 여파로 당시 러시아제국의 대공국이던 핀란드에서도 독립과 급진적 사회개혁을 요구하던 대규모 총파업과 소요 사태가 일었고, 러시아 차르의 양보로 기존 신분제 의회(Diet of Estates)를 폐지하는 대신 근대 단원제 의회(Eduskunta)가

2) 까뜨리 쿨무니는 2020년 상반기 공금의 부적절한 사용 스캔들로 장관직에서 사임했으며, 2020년 9월 중앙당대회에서 재선 연임에 실패했다. 중앙당은 37세의 또다른 젊은 여성 안니카 사리코(Annikka Saarikko)를 새 대표로 선임했고, 그녀는 현재 과학문화장관으로 재임 중이다. 그녀 역시 27세 당 부대표 선출, 28세 국회의원 선출, 33세 가족·사회서비스장관 임명 등 비슷한 정치 경력을 거쳐 현재 위치에 올랐다(위키피디아 및 개인 홈페이지 정보 참조).

설립되었고, 동시에 만 24세 이상 남녀 성인 모두에게 유럽 최초로 보편적 참정권이 부여되었다. 특기할 것은 당시 핀란드 여성들은 선거권만이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동시에 부여받았다는 점이다. 핀란드에서 참정권 연령은 24세에서 점진적으로 낮아졌다. 1944년부터 21세로 낮아진 선거권 연령 기준은 1968년에 다시 20세로 낮아진 뒤 1972년부터 현재와 같은 18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핀란드가 소련과 두 차례 대규모 전쟁을 겪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전장에서 돌아온 청년들의 참정권 보장은 당연한 개혁 과제 중 하나였다. 또, 1960년대 후반 68혁명과 신사회운동의 영향을 받아 참여민주주의가 부상함에 따라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선거 연령 인하를 단행한 것이 핀란드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핀란드의 청소년 단체들은 아동, 청소년의 참여권 증진을 위하여 선거권 연령을 오스트리아와 같이 만 16세로 더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선거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핀란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의원 등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모두 18세이다(서현수, 2020b).

### 3. 핀란드의 청소년 참여 제도

핀란드의 청소년들은 주기적인 선거 참여의 권리를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학교와 사회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장받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위한 다양한 채널들이 활발히 작동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핀란드의 다양한 청소년 참여 제도를 살펴본다.

#### 1)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위원회

어린이 의회(Lasten Parlamentti)는 2001년 땀베레(Tampere)시에서 시작돼 전국의 주요 도시로 확산된 프로그램으로 6학년 이하 어린이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어린이와 관련 정책이나 의제들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도시 정책결정자들에게 들리도록 하고, 어린이들에게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기술을 연령대에 맞는 방법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 프로그램의 기본 목표이다. 예컨대, 땀베레 어린이의회 프로그램은 1년에 2회 개최되는 총회(Suurkokous), 2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임기 2년의 집행부(Hallitus), 그리고 8개 구역으로 나뉜 지역의회들(Allueelliset Parlamentit) 등의 기제를 통해 운영되며, 일반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들도 기획된다.<sup>3)</sup>

청소년위원회(Nuorisovaltuusto)는 중합학교 7-9학년 학생들과 고등학생 및 직업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채널이다. 청소년위원회는 2015년 개정된 지방정부법(Kuntalaki) 제26조에 명시된 공식 기구로 지자체의 업무 영역의 계획, 준비, 실행, 평가 전반에 걸쳐 청소년들의 관점과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제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방 정책결정자들의 업무를 이해하고, 청소년들과 의사결정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0년 현재 98퍼센트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주로 각 학교 학생회 대표들이 파견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나 최근 헬싱키 등 주요 도시들에서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청소년

3) <http://www.nuorentampere.fi/lastenparlamentti/> 내용 참조(2020.10.30. 검색).

위원들을 구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컨대, 헬싱키 청소년위원회(Helsingin nuorisoneuvosto)는 2019년 선거를 통해 30명의 대표들을 선출했다. 후보는 총 72명이었으며, 학생들의 투표율은 35.4%를 기록했다.<sup>4)</sup> 넄페레에서도 2022년 청소년위원회 직접 선거가 열릴 예정이다.<sup>5)</sup>

## 2) 청소년의회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아동, 청소년 참여 채널이라면, 전국적 수준에서는 청소년의회(Nuorten Parlamentti)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의회는 1994년 프랑스에서 시작돼 유럽과 세계 각국으로 확산된 프로그램이며, 핀란드에서는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15-16세 나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평소에는 학교와 지역의 의회 클럽 활동을 통해 운영되다가 2년에 한 번 하루 동안 헬싱키에 있는 핀란드 의회 의사당에 대표들이 모여 의회 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은 국가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 2년 주기 프로그램을 위해 권역별 선거구별로 199명의 청소년 의원들이 선발되며, 오전에는 의회 위원회 세션을 경험하고 오후에는 본회의 세션을 경험한다. 하이라이트는 본회의 세션의 '총리에 대한 질문' 프로그램으로 현직 의회 의장이 직접 사회를 보고 청소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총리와 장관들이 직접 출석해 답변하며, 공영방송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특기할 것은 청소년 의원들의 질문이 사전에 온라인 플랫폼에 모두 제출되고, 이에 대한 일반 청소년들의 투표를 통해 질문의 리스트와 순서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2018년 청소년의회(경우<sup>6)</sup>), 본회의 프로그램을 위해 의회 클럽 회원들이 제기한 159개 질문들에 대한 사전 온라인 투표가 2018년 2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 간 진행됐다. 총 1491명이 투표에 참가해 10개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선택했다. 그 결과 총 41개의 질문이 본회의 프로그램을 위해 선정되었다. 실제 행사에서는 시간 제약으로 28개의 질문이 행사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던져졌다(Nuorten Parlamentti 2018: p. 31). 온라인 투표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의제들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 2018년 청소년의회 대정부질문 상위 20위**

|                          |                                 |
|--------------------------|---------------------------------|
| 1위 핀란드의 핵전쟁에 대한 대비(171표) | 11위 중등교육 비용의 공유(117표)           |
| 2위 외국인 소외(154표)          | 12위 선거 공약의 의미(110표)             |
| 3위 트랜스젠더 강제불임(150표)      | 13위 청소년 고용 증진(107표)             |
| 4위 적극적 안락사 합법화(148표)     | 14위 청소년을 위한 자동차(106표)           |
| 5위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인식(140표) | 15위 건강센터의 의사 부족(105표)           |
| 6위 안락사 합법화(135표)         | 16위 운전면허증 비용(104표)              |
| 7위 무상 대중교통(133표)         | 17위 중증 질환 아동들을 돕기 위한 EU 협력(97표) |
| 7위 테러리즘에 대한 대비(133표)     | 17위 학생수당 삭감 조치에 관하여(97표)        |
| 9위 정부의 재정 감축 조치들(127표)   | 19위 핀란드의 미래(94표)                |
| 10위 학생들 간 불평등(122표)      | 20위 국가 부채(91표)                  |

출처: Nuorten Parlamentti (2018: p. 15).

4) <http://ruuti.munstadi.fi/nuorisoneuvosto/> 내용 참조(2020.10.30. 검색).

5) <https://www.tampere.fi/kulttuuri-ja-vapaa-aika/nuorten-tampere/vaikuta/nuorisovaltuusto/nuorisovaltuustovaalit.html> (2021.9.7. 검색)

6)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개최되지 못하였다.



의제들을 살펴보면, 핵전쟁과 테러리즘에 대한 대비 등 안보 관련 의제들이 일부 관찰되나 전반적으로 중등교육 비용의 공유, 교육 불평등, 청소년 고용 증진, 청소년 정신건강, 학생수당 등 주로 교육과 청소년의 삶에 밀접한 관련을 맺는 의제들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토론에서도 이들 주제에 대한 밀도있는 문제제기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기된 질문들 가운데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표결이 이루어졌다. 그 의제들을 살펴보면, (1) 대중교통비를 무료로 해야 할 것인가, (2) 운전면허 취득 연령 기준을 16세로 낮추어야 하는가, (3) 핀란드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할 것인가였다. 첫째 의제에 대해서는 학생 의원들의 의견이 97-97(찬-반)로 팽팽히 갈렸다. 둘째 의제에 대해서는 90-106의 투표 결과가 나왔으며, 셋째 의제는 123-53의 투표 결과가 나타났다(Nuorten Parlamentti 2018: p. 31). 본회의 세션은 공영방송 채널과 온라인을 통해 시청할 수 있고 녹화물을 다시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의원들과 장관들 간에 주고받은 문답 내용이 속기록 형태로 정리되어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한편, 청소년의회 행사에는 학생 저널리스트 150명이 참여하며 이들은 의회정당그룹 원내 대표단과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핀란드의 청소년의회 프로그램은 의회와 청소년발달센터 Opinkirjo가 공동 주관하며, 전직 국회의원들이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대화하는 ‘찾아가는 의회’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위원회 절차 등 의회의 입법 과정을 체험적으로 학습하는 ‘위원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들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sup>7)</sup>

### 3) 청소년선거

선거는 학교에서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용한 민주주의 시민교육 또는 정치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인식되며,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학교와 교사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된다.<sup>8)</sup>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 선거(Nuorisovaalit)로, 핀란드에서는 1960년대에 첫 청소년 선거가 이루어졌으며, 1995년부터는 전국 단위의 청소년단체연합 조직인 Allianssi ry의 주관으로 의회 선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유럽의회 선거 등 전국 단위의 주요 선거 일정마다 병행하여 실시해오고 있다. 선거는 실제 선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2019년 상반기에는 의회 선거와 유럽의회 선거가 한 달 간격으로 실시되었으며, 이에 맞추어 청소년 선거가 함께 실시되었다.

그 중 핀란드 의회 선거에 관한 청소년 선거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12개 광역 선거구<sup>9)</sup>의 877개 학교<sup>10)</sup>(상급반 종합학교 454개, 인문계고등학교 223개, 하급반 종합학교 147개, 직업학교 46개, 기타 7개)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다. 총 투표수는 62,935표였으며, 그 중 3,628표는 무효로 처리되었다. 이는 참가 대상인 약 131,600명의 학생들 가운데 약 48%가 참가한 수치에 해당한다.<sup>11)</sup> 2019년 실제 의회 선거에서는 사민당(17.7%), 핀란드인당(17.5%), 국민연합당(17.0%), 중앙당(13.8%), 녹색당(11.5%) 순의 결과가 나타났지만, 청소년 선거에서는 녹색당(17.1%), 국민연합당(14.5%), 핀란드인당(14.5%), 중앙당(11.7%), 사민당(8.1%) 순의 결과가 나타났다(아래 그림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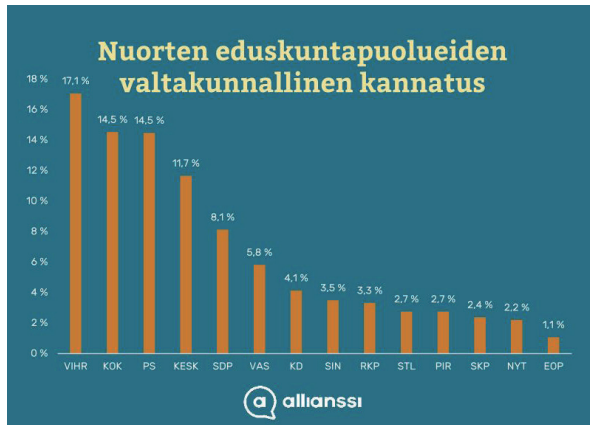
7) <https://www.eduskunta.fi/FI/NuortenEduskunta/NuortenParlamentti/Sivut/default.aspx> 내용 참조(2020.10.30. 검색).

8) 1980년대 이후 교육 정책 거버넌스의 분권화 및 자율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다.

9) 스웨덴어를 제1공용어로 사용하는 특별자치구로 국회의원 1석을 할당받는 올란드(Åland) 선거구는 청소년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10) 2015년 총선에 실시된 청소년 선거에서 630개 학교가 참가한 것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참가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소년 선거 참가 여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어떤 학년 또는 학급이 참가할 것인지도 학교의 재량 사항이다.



출처: 서현수(2020b: 76).

실제 정당 득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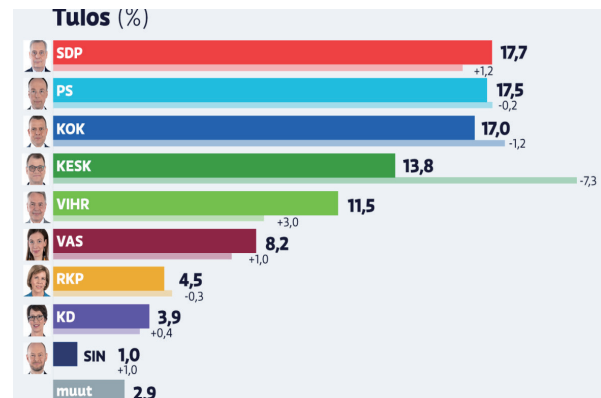


그림 1 2019년 의회 선거 결과와 청소년 선거 결과 비교: 정당별 득표율

선거 결과는 총선 전에 Allianssi ry가 취합하여 발표하였고, 이는 공영방송 YLE의 시사 프로그램(A-Studio)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주요 언론사들도 그 결과를 자세히 보도하였다. 청소년 선거 외에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위원회가 주관하고 학교와 협력하여 진행되는 선거 패널 토론회도 선거 시기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전국의 학교에서 수백 회의 선거 패널이 열리며, 여기에는 정당 관계자와 청년 후보들도 초청된다. 아울러, 후보와 유권자들의 설문조사(이념적 가치 지향, 정치적 태도, 의제별 정책 선호 등으로 구성)에 기초해 자신에 적합한 후보를 매칭시켜주는 컴퓨터 프로그램(vaalikone, [www.nuortenvaalikone.fi](http://www.nuortenvaalikone.fi))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청소년 선거에서 활용된다.

#### 4) 정당청년조직

핀란드에서는 15세 이상 청소년들은 누구나 정당이 운영하는 청년 조직에 가입할 수 있다. 녹색당 등 일부 정당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13세부터 참여를 허용한다. 정당 청년 조직은 당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통로로 기능하며, 당내 싱크탱크로서 청(소)년들의 가치와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지역별, 부문별 조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주요 정책 주제별로도 활동 그룹을 구성해 활발히 논의와 실천을 전개한다. 예컨대, 사민당 청년조직의 경우 2020년 8월 28차 총회를 개최해 새로운 정치 프로그램(Polittinen ohjelma)을 채택했다. 이 프로그램은 복지정책, 경제정책, 노동 및 산업정책, 교육문화정책,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지방과 지역정책, 토지이용과 교통정책, 환경기후 및 에너지 정책, 국제 및 유럽정책, 안보정책 등에 대한 사민주의 청년들의 기본 원칙과 관점, 구체적 정책 방향과 과제 등을 담고 있다. 녹색당 청년학생조직의 경우에는 정치적 원칙 프로그램(2013), 교육정책 프로그램(2017), 환경정책 프로그램(2018), 환경정책 프로그램(2018), 유럽정책 프로그램(2017), 지방선거 프로그램(2017), 경제정책 프로그램(2016), 사회정책 프로그램(2019), 의회 및 유럽의회선거 프로그램(2019) 등 다양한 분야별, 주제별 공식 프로그램을 채택해왔다. 정당 청년 조직의 대표들은 당의 부대표로 선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선거 캠페인 등의 과정에서 청년 조직 대표들 간의 TV 토론회가 별도로 조직될 정도로 비중있는 역할을 인정받고 있다(서현수 2019b: 176; 서현수, 2020c: 14-22).



## 5) 지역주민발의

핀란드는 1977년부터 주민발의제도를 운영해왔다. 지방정부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과 단체는 지자체 업무와 관련된 발의를 제기할 수 있다(연령제한 없음). 발의안이 지역 주민 2% 이상의 서명을 얻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공식 심의해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15세 이상 주민 4% 이상의 서명을 받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주민투표는 구속력은 없으며 협의적(advisory) 성격을 띤다. 다만, 주민투표 참가 자격은 18세 이상의 선거권자로 제한된다(지방정부법 제24조).<sup>12)</sup> 한편, 핀란드는 2012년부터 전국 단위의 시민발의제도(kansalaisaloite, citizens' initiatives)를 도입해 18세 이상 유권자 5만 명 이상이 서명하는 경우 그 입법 의제를 의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단체들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민주주의 참여를 위해 시민발의를 제기하거나 서명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현 18세에서 16세 또는 15세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서현수 2019a).

한편, 핀란드는 2012년부터 헌법 개정과 별도 입법을 통해 국가적 수준의 시민발의(kansalaisaloite) 제도를 도입해 18세 이상 유권자 시민 5만 명 이상의 서명이 있는 경우 그 의제를 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또, 같은 해부터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유럽시민발의(European Citizens' Initiative)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 정부는 '민주주의 프로그램 2025'를 새롭게 마련하면서 시민발의와 유럽시민발의 서명 가능 연령 기준을 현행 18세에서 15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4절에서 추가 설명).

## 4. 핀란드 정부의 청소년 참여 정책: VANUPO 프로그램(2019-2023)을 중심으로

핀란드는 청소년 정책을 주관하는 별도 정부 부처를 두고 있지는 않다. 대신, 다양한 정부 부처와 기구들에서 다양한 청소년 관련 정책들이 추진되며, 교육문화부(Opetus- ja kulttuuri ministeri)가 이러한 청소년 활동 및 정책의 전반적 발전과 조정의 책임을 맡고 있다. 또한, 청소년법(Nuorisolaki) 제6조에 의거 국가청소년위원회(Valtion nuorisoneuvosto)가 교육문화부와 협력해 청소년 관련 활동과 정책에 대해 자문, 심의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총리가 이끄는 국무회의에서 임명되는 청소년 분야 전문가와 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이들은 대부분 주요 정당 청년조직이나 청소년 단체의 대표들로 그 자신 청년들이인 경우가 많다.

핀란드 청소년법의 목적은 1) 청소년의 사회적 통합(참여)을 증진하고 그들에게 영향력 행사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에서 역할하기 위한 기술과 역량을 향상하는 것, 2) 청소년들의 성장, 독립성, 공동체 감각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식의 습득과 기술의 채택을 촉진하는 것, 3) 청소년들의 자유시간을 추구하고 시민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4) 차별금지와 청소년들 간 평등, 그리고 청소년들의 권리 실현을 증진하는 것, 5) 그리고 청소년의

12) <https://www.kuntalaisaloite.fi/fi/ohjeet> 내용 참조(2020.10.30. 검색).

성장과 삶의 조건을 향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도적 원칙으로 1) 연대, 문화 다양성, 세계성, 2) 지속가능발전, 건강한 삶의 양식, 생명과 환경 존중, 3) 부분을 가로지르는 협력이 명시돼 있다(청소년법 제2조).

이에 따라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핀란드 청소년 정책의 기본 목표를 ‘부문별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장하고 살아가는 조건을 향상하고, 세대 간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것’으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활동(사업)의 목표는 ‘청소년들이 성장하고 독립적인 삶으로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것’으로 제시된다.<sup>13)</sup> 구체적으로, 핀란드 정부의 청소년 정책은 총선 이후 들어서는 매 정부가 수립하는 4년 주기의 정부 프로그램(Hallitus ohjelma)와 역시 4년 주기의 범정부적 ‘국가 청소년 활동 및 정책 프로그램(VANUPO: Valtakunnallinen nuorisotyön ja -politiikan ohjelma)’에 체계적으로 제시돼 있다.

현 산나 마린 총리의 정부 프로그램 ‘Osallistava ja osaava Suomi – sosiaalisesti, taloudellisesti ja ekologisesti kestävä yhteiskunta(참여적이고 유능한 핀란드 –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는 청소년 정책 프로그램의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기반해 정부는 2019년에 2차 VANUPO 프로그램을 수립해 중심 목표와 세부 과제, 부처별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등을 명시한 뒤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법 제5조와 청소년 활동 및 정책에 관한 정부 행정령은 정부가 4년마다 국가적 수준의 청소년 활동 및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 실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 당사자들과 청소년 활동 및 정책 분야의 핵심 행위자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VANUPO 프로그램은 정부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해 청소년들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고 참여와 포용을 강화할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프로그램은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한다.

1. 청소년들은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선결 조건들을 갖게 될 것이며, 사회적 배제는 감소될 것이다.
2. 청소년들은 참여와 영향력 행사를 위한 도구와 기술을 갖게 될 것이다.
3. 청소년들이 사회를 신뢰하게 될 것이며,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와 안전이 강화될 것이다(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9: 10).

각각의 목표에는 다수의 세부 목표와 그 근거, 측정 기준, 중점 대상 집단, 주관 및 협력 부처, 그리고 주요 지표 등이 제시돼 있다. 아래 표는 중심 목표와 세부 목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3 국가 청소년 활동 및 정책 프로그램(VANUPO, 2019-2023) 주요 목표와 과제**

**목표 1. 청소년들은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선결 조건들을 갖게 될 것이며, 사회적 배제는 감소될 것이다.**

- 사회보장 시스템의 개혁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필요, 서비스, 혜택들이 식별되고 고려될 것이다.
-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이 지원될 것이다.
- 아동복지서비스의 고객이었던 청소년들의 사후 돌봄(after-care)이 그들의 성인기로의 여정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지원을 보장하도록 발전될 것이다.
- 다직업적(multi-professional) 협력과 특히 청소년 활동(사업)이 일반 교육과 직업 교육훈련에서 강화될 것이다.
- 독립 생활을 위한 청소년들의 역량이 향상되고 청소년 홈리스의 발생이 감소할 것이다.
- 청소년들은 자신이 즐기는 취미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 적극적인(청소년 친화적인) 재정 지원 상담을 통해 재정 상황을 통제하기

13) <https://minedu.fi/en/policies-and-development-youth>, 2021.9.7. 검색.

### 목표 2. 청소년들은 참여와 영향력 행사를 위한 도구와 기술을 갖게 될 것이다.

- 청소년들의 시민적 참여를 촉진하는 도구들이 발전될 것이다.
-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민주주의 · 인권 교육이 확대될 것이다.
- 기후 변화 논쟁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 목표 3. 청소년들이 사회를 신뢰하게 될 것이며,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와 안전이 강화될 것이다

- 청소년들의 대인 기술과 상호작용 기술을 향상하고 왕따(bullying)에 개입하기
- 차별적 구조들이 식별되고, 차별을 경험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역량이 증대될 것이다.
- 자신의 문제들의 한 징후로서 범죄 행위에 관여하는 청소년들의 복리(well-being)를 향상하고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다직업적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 아동,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루밍(grooming)되는 것을 막기 위한 협력 강화

출처: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2019)의 내용을 토대로 필자가 정리.

이처럼 핀란드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 청소년 활동 및 정책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립, 실행해오고 있다. 프로그램의 목표와 과제들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사회적 배제를 낳는 실질적인 삶의 조건들을 개선, 향상하고, 나아가 청소년 참여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들이 서로 긴밀한 연관과 다층적 협력 체계를 통해 구현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VANUPO 프로그램의 수립 과정에서 폭넓게 청소년들 및 청소년 분야의 핵심 이해관계자들과의 정책 협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핀란드 교육문화부에 따르면, 2019년 6월 19일 프로그램 준비 작업이 처음 개시될 때 관계 당국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참여한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의 제안과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들 기관이나 단체들이 제출한 의견서들은 모두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공유되고 있다. 그 뒤 실제 정책 프로그램 수립 과정에서 정부는 104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1,890명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부 프로그램 중 청소년 관련 정책 과제와 목표들을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에서 겪는 구체적 문제와 연결하는 테마 카드 방식을 활용한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들의 삶의 실제 양태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점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내용이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었다. 나아가, 핀란드 정부는 2019년 10-11월에 온라인 플랫폼(lausuntopalvelu.fi)을 통해 관계 기관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전문가들로부터 정책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총 111개의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정책 프로그램이 작성, 제출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9: 56-60).

한편, 핀란드 정부는 현재 법무부 주관 및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적 수준의 민주주의 프로그램(Kansallinen demokratiaohjelma 2025)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2022년 수립될 예정인 민주주의 프로그램은 위에서 살펴본 VANUPO 프로그램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정치, 사회적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목표와 과제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주의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층적인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증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에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시민 참여 채널을 발전시키고, 정책결정 및 입법 과정의 투명성과 시민사회 의견 청취 기회를 확대하며,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교육 그리고 청소년 참여를 강화하고자 한다. 구체적 목표로 1)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를 정부 활동의 핵심으로 전략 문서에 명시, 2) 선거 비례성 제고 및 평등한 선거 참여 증진, 3) 더 개방적이고 투명한 공공 행정, 4) 민주주의, 법치국가, 헌법적 기본권 및 인권 증진을 위한 범부처 간 협력 증대 및 공공 신뢰 증진, 5) 시민발의와 유럽시민발의 연령 기준 인하 검토, 6)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층적 수준에서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 기제 활성화, 7)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시민사회 활성화, 8) 노인, 장애인, 언어·문화적 소수 집단의 참여 증진, 9) 국가교육과정 및 교사 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민주주의, 인권 교육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Oikeusministeriö, 2020).

## 5. 결론

오늘날 후기 근대적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다층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미래세대의 관점과 이익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대표할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의 첨예한 프론티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핀란드는 유럽 최초로 남녀 성인 대상의 보편적 참정권을 도입한 이래 단계적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인하해왔으며, 오늘날 총리와 주요 장관들이 30대 초중반의 젊은 청년들로 구성되는 등 역동적인 청년 정치의 미래를 선취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성취가 가능한 배경에는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의회, 청소년선거, 정당청년조직, 주민발의제 등 아동,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치, 사회 참여 채널들이 작동되는 열린 민주주의의 현실이 있다.

나아가, 핀란드 정부는 체계인 법적, 정책적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적극적인 청소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계 최초의 미래 관련 의회 기구로 평가받는 핀란드 의회 미래위원회는 주요 법안과 정부 정책에 대해 미래세대의 (잠재적) 이해관계와 관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조언한다. 또한, 핀란드 정부는 4년마다 범부처 차원의 국가 청소년 활동 및 정책 프로그램(VANUPO)을 수립, 실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매우 광범위한 수준의 청소년 당사자들 및 관련 단체 대표들과 정책 협의와 의견 청취가 이루어짐으로써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제들을 도출해 정책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모습이다. 나아가, 현 산나 마린 정부는 별도의 국가 민주주의 정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정책 방안이 함께 강구되고 있다.

핀란드의 종합학교 사회교과서는 민주주의를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 나도 참여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한다(서현수, 2019b). 아동, 청소년 시기부터 자신의 삶과 관련된 다층적 수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정치 시스템과 문화를 통해 21세기 현대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고 있는 핀란드의 사례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대상 집단으로 간주해 그 정치적, 시민적 권리의 실현을 성인 유권자가 될 때까지, 심지어는 피선거권의 경우 25세(국회의원 등), 40세(대통령)의 연령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일괄 유보하는 것을 당연시해온 한국 사회와 크게 대비된다. 2020년대의 한국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대안적, 역동적 민주주의 공동체의 상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실천하는 과정에 핀란드 사례는 중요한 통찰과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서현수. (2019a). 『핀란드의 의회, 시민, 민주주의: 열린, 포용적 의회-시민 관계를 향하여』, 서울: 빈번책방.
- 서현수. (2019b). 『핀란드의 민주주의와 학교 시민교육: 통합적, 실용적, 가치기반 접근』, 심성보 외.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과제』, 서울: 살림터.
- 서현수. (2020a). 참정권 측면에서 본 18세 선거권의 의의와 한계: 핀란드 사례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 토론회 발제문. (2020.1.30. 서울글로벌센터)
- 서현수. (2020b). 핀란드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학교 선거교육. (김현진 외. (2020). 18세 선거권과 학교교육의 대응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pp.64-79.에 포함)
- 서현수. (2020c). 해외 사례 분석: 핀란드의 민주주의와 청년정치. 윤광일 외. 청년의 대표성 향상과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pp. 3-28.
- 토마 피케티. 2020. 자본과 이데올로기. 문학동네.
- 한나 아렌트. 1995. 인간의 조건. 한길사.
- Bergman, T., & Strom, K. (Eds.). (2011). The Madisonian turn: Political parties and parliamentary democracy in Nordic Europ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Eckersley, (2011). Representing nature. The futur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Eds. by Alonso, S., Keane, J., & Merkel, W.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9. The National youth work and youth policy programme 2020-2023: Aiming to ensure a meaningful life and social inclusion for all young people. (<https://julkaisut.valtioneuvosto.fi/handle/10024/162381>, 검색일: 2021.9.8.)
- Nuorten Parlamentti, 2018. Raportti Nuorten parlamentin toiminnasta 2017-2018. ([https://www.eduskunta.fi/FI/NuortenEduskunta/Documents/Raportti\\_2017\\_2018.pdf](https://www.eduskunta.fi/FI/NuortenEduskunta/Documents/Raportti_2017_2018.pdf)).
- Oikeusministeriö. 2020. Kansallinen demokratiaohjelma 2025: toimintasuunnitelma. (<https://valtioneuvosto.fi/hanke?tunnus=OM036:00/2019>, 검색일: 2021.9.7.)
- Oikeusministeriö. 2020. Kansallinen demokratiaohjelma 2025: toimintasuunnitelma. ([https://api.hankeikkuna.fi/asiakirjat/b90db14e-6790-41d1-82bb-056437530015/20de2c92-c8bd-4461-b5d4-23083e71e4c6/KIRJE\\_20200327120730.PDF](https://api.hankeikkuna.fi/asiakirjat/b90db14e-6790-41d1-82bb-056437530015/20de2c92-c8bd-4461-b5d4-23083e71e4c6/KIRJE_20200327120730.PDF), 검색일: 2021.9.8.)
- Smith, G. (2009). Democratic Innov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 Thompson, D. F. (2010). Representing future generations: political presentism and democratic trusteeship. Critical review of international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13(1), 17-37.
- Vieira, M. B., & Runciman, D. (2008). Representation. Polity.